

JENESYS2024 팔로우업사업 “한일차세대회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류 기록

1. 사업개요

【목적】 본 사업에서는 JENESYS 사업참가 경험이 있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사회인 등이 프로그램 참가경험을 살려 한일 각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테마로 토론을 실시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본회의에서 발표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양국의 사회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해, 앞으로의 한일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참가자】 11 월 23 일 JENESYS 사업에 참가경험이 있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사회인 등
(일본측 20 명, 한국측 9 명)

2 월 15 일 JENESYS 사업에 참가경험이 있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사회인 등
(일본측 7 명, 한국측 10 명)

【일정】

날짜 방문지	내용	참가자의 질문·반응 (참자가 인원수)
11 월 23 일	“2024 한일차세대회의~빅스트제네레이션·한일 GenZ 세대의 지역활성화 토크” 테마 관련 발표 및 의견교환	한일의 참가자가 Zoom 으로 참가하여, 일본과 한국의 공통 과제인 지역활성화에 대해 소개한 다음, 과제해결을 위한 활동과 어떻게 매력을 창출해 왔는지를 공유했습니다. 한일의 참가자가 자국의 3 개의 지역활성화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의 지역이 명소와 이벤트, 특산물 등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와 이주자 유치, 거리 정비를 통해 활성화에 임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지방자치체의 캐릭터와 일본의 빈집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등 활발하게 의견교환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 : 16 명)
2 월 15 일	“2024 한일차세대회의~문화와 교육으로 보는 한일의 모습~” 테마 관련 발표 및 의견교환	한일의 참가자가 Zoom 으로 참가하여, 일본과 한국의 공통 과제인 ‘교육’과 젊은이 들의 관심이 높은‘팝컬처’에 대해 참가자 들이 자신에 생각을 설명하면서 해결책,발전 방안을 검토하고 발표했습니다. 피드백 시간에는 서로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활발한 의견교환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 : 17 명)

2. 기록사진

	地域による教育格差 - 子どもの数が多い大都市に教育施設が集まる傾向がある 日本：首都圏に進学率の高い中高一貫校や大手塾が集中 韓国：ソウルに難関大学が集中 - 地方の学生が難関大学へ進学しにくい環境 →地方に根強く残る性差も影響
2024 년 11 월 23 일 테마 관련 발표	2025 년 2 월 15 일 테마 관련 발표

3. 참가자 감상(발체)

◆ 한국 대학생

오늘 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만남과 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 한국 대학생

이번에 일본 대학생분들과 지역활성화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 대학생 친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일본의 현재의 지역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양국 사아에 있는 유대감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 일본 대학생

내자신의 관심분야인 팝컬처·교육에 관해 현재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한이 함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한국 사회인

한일차세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 일본 사회인

한국측의 견해가 재미있었습니다. 야간자습은 아직 강제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과, 반대로 학원과 입시학원 등의 시스템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입시의 방식이 여러가지 있다는 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4. 일본측 감상(발제)

◆ 일본측 운영단체 (JENESYS 동창조직 Japan Korea Alumni Forum)

이번에 4 번째가 되는 한일차세대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측으로 참가해주신 KJAFB 의 여러분과는 첫 교류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서로 협력하여 준비를 추진함으로써 대단히 좋은 회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문화와 교육으로 본 한일의 모습”이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일한공통의 화제인 ‘교육문제’와 ‘팝컬처’라는 2 가지 테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두 의제 모두 양국에서는 젊은이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교육격차와 교원의 근무방식, 비방중상 등이 의제로 올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금의 세계정세는 어지럽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굳은 유대로 유지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관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는 일한의 가교로써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측 운영단체 (JENESYS 동창조직 Korea Japan Alumni Forum BUSAN)

부산 지역 동창 조직은 2024 년 새로이 발족되었습니다. 처음 진행해보는 차세대 회의이니만큼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JKAF 측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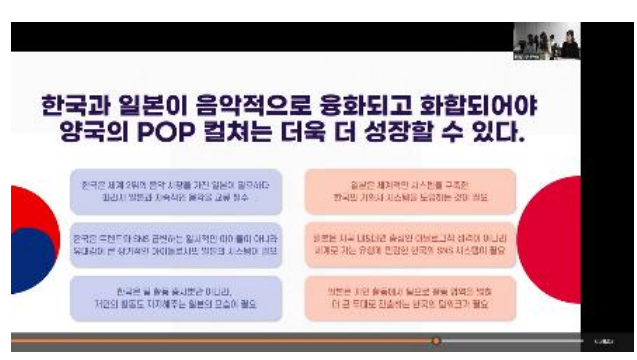
차세대 회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도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 공통점, 차이점 등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만큼 조금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 및 홍보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한일우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일의 가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체), 보도자료 등

	
2024 年 12 月 2 日 (Naver Blog) 이번 한일차세대회의는 여름에 방문했던 이시노마키센슈대학의 쇼지마키 교수님의 지도하에 '한일 양국의 지역활성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일 각 나라의 지역활성화 방안 그리고 각 지역의 현 지역활성화 방안을 들으며 다양한 의견들을 교류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2025 年 2 月 15 日 (Instagram) 2월 15일(토)에 4번째가 되는 한일차세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와 교육으로 보는 한일의 모습’을 테마로 JKAF (JENESYS 동창조직 Japan Korea Alumni Forum) 와 KJAFB (JENESYS 동창조직 Korea Japan Alumni Forum BUSAN) 가 ‘교육문제’와 ‘팝컬처’에 대해 의견교환, 질의를 실시했습니다.

6. 본회의에서의 발표 내용 (발체)

	
---	--

• 11월 23일에 실시한 “2024 한일차세대회의~넥스트제네레이션~한일 GenZ 세대의 지역활성화 토크”에서는, 한국측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함안군」의 지역활성화 사례를, 일본측은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초」 「시마네현 이즈모시」 「시가현 나가하마초」의 사례를 발표하고, 한일의 지역별 다양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산물과 축제 등 지역의 매력을 다각적인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이 없어도 무관심한 채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2 월 15 일에 실시한 “2024 한일차세대회의~문화와 교육으로 보는 한일의 모습~”에서는 한국측은 ‘한국의 야간자율학습의 자유화에 따른 사교육 의존 문제의 증가’ ‘팝컬처’, 일본측은 ‘수입과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팝컬처’를 테마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측의 발표

●교육 : 야간자율학습의 자유화에 따라, 사교육 비용의 증가, 지역격차, 공교육의 역할 약화, 학생의 학습에 대한 부담 증가가 거론되었습니다. 해결책으로써는, 교육의 질의 개선, 대학입시제도의 개혁, 사회적 인식의 변화 (성공의 기준의 다양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팝컬처 : 한국과 일본의 팝컬처의 특징을 제시하고, 한국과 일본이 음악적으로 융화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양국의 팝컬처는 더욱 성장하고, 팝컬처를 통한 교류가 가일층 한일관계 개선시킬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측의 발표

●교육 : ‘수입과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테마로, 입시제도에 의한 격차, 가정의 경제 수준으로 인한 교육격차, 지역에 의한 교육격차, 교원부족에 의한 교육격차 등의 예를 들어, 해결책으로써 정부와 자치체에 의한 교육비 보조와 무상화, ICT 교육의 활용, 교육 CSR 의 추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팝컬처 : 문제점으로써 ‘자국의 팝컬처에 대한 낮은 관심’과 ‘비방중상’이 거론되었고, 해결책으로써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일본의 팝컬처를 역수입하여, 그 매력을 일본인이 발견하는 페스티벌 개최를 제안하고, 또한 #를 사용한 비방중상 반대운동,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계발운동, 상담가능한 환경 만들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